



# 외산녹용 단속 불붙었다

- 밀양이여 포천, 아산, 진주, 연천 등 싹쓸이 단속 -

외산녹용 단속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 8월23일 최초 밀양의 M농장을 서울세관과 본회가 합동조사한데 이어 9월 12일에는 서울 지하매장을 본회와 서울세관,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가, 그 이튿날에는 충남 아산의 D농장을 급습했다. 9월16일에는 포천의 W사슴농장과 충남 아산의 D농장을, 10월11일에는 경남 진주의 N농장과 사무실을 부산경찰청 단속반과 합동 단속했다. 이어 10월17일에는 서울세관과 연천에 위치한 H제약회사(녹용건조회사)를 덮쳐 관련 장부들을 압수해 왔다. (관련기사 본문 참조)

이처럼 지속적인 단속이 진행되는 이유로는 서울세관이 외산녹용 단속에 대한 의지를 갖고 수사망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 서울세관은 그 동안 압수한 장부들을 통해 관련된 사람들을 추적, 녹용의 유통경로를 쫓고 있으며 현재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부와 통장 추적 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혐의 양록인들을 포착,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공항세관 역시 공항을 통한 밀수 녹용 및 부적합품으로 반송 조치시킨 녹용이 다시 여러 과정을 거쳐 국내에 유입된다고 보고 수사 착수를 위한 협조를 본회에 요청해 왔다.

둘째로는 늘어나는 양록인들의 제보. 포천 S농장과 진주 N농장을 단속할 수 있던 배경에는 양록인들의 결정적인 제보가 주효했다. 이 외에도 외산녹용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하매장, 속칭 '뺨다방'에 관한 제보도 몇 차례 접수되는 등 외산녹용에 대한 양록인들의 척결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물론 현재와 같은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기까지는 본회가 수년에 걸쳐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단속 요청을 실시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본회 관계자는 "응답이 늦긴 했지만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색출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업계를 말아먹는 외산녹용 타파 역시 본회의 주요 업무임으로 이 땅에서 불법 유통 녹용이 사라지는 날까지 외산녹용과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본회는 지난 10월25일 '수입녹용 불법유통, 양록인의 의지로 척결하자'는 제목의 합동 성명서를 발표, 불법유통 외산녹용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또한 이와 더불어 주소가 확보된 전국 8천여 농가에 불법유통 외산녹용을 취급치 말고 의심되는 녹용은 즉시 신고하라는 요지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국양록**